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수지면에 사랑의 줌도리쌀 후원

남원시 수지면 관계자는 남원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서재석)는해 수지면 어르신들을 위한 쌀 380kg(10kg 38포)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작은 손 봉사단 환경 산악회 회원 등이 참여한 MG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 운동으로 남원 관내 행정복지센터(10곳), 복지기관(이백면 햇빛 복지센터, 주천면 평화의 집 등)에 총 4,980kg의 쌀이 전달되었다.

서재석 이사장은 "MG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 운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명호 수지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남원중앙새마을금고의 후원에 대해 감사 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나만의 강점 찾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29일 3~4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나만의 강점 찾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강점 지도 전문가와 함께 △나는 나 소개하기, △나의 강점 찾아 발견하기, △행복 이야기 등 3가지 활동으로 구성,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자신의 강점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토텔링 강점 검사 해석을 통해 자신의 강점 요소를 파악하고, 영화 속 인물 분석, 피라미드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다각도로 탐색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했다.

나이가, 이를 직업과 연결해 진로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성 기자



남원운동지사협, '더 빨리'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운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 가게에 동참해 준 더 빨리(대표 최태주)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 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사랑의 열매 착한 가게 현판으로 착한 가게 동참을 확인할 수 있다.

최태주 대표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전했으며, 이은주 운동읍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며, 한마음으로 모인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죽산여성의용소방대, 설렁탕 100그릇 기탁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죽산여성의용소방대(대장 정미향)가 1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설렁탕 100그릇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죽산여성의용소방대는 죽산면의 화재 예방을 위해 수시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원물품 기탁, 행사 안전 요원 봉사 등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미향 죽산여성의용소방대장은 "환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기력을 회복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남기 죽산면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여성의용소방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리 수납 코칭 매니저 창업 과정’ 개강

남원 여성새일센터, 취·창업 희망 미취업 여성 20명 대상... 6월 26일까지 총 232시간

남원시 여성새일하기센터는 정리 수납 관련분야로 취·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1일 직업교육훈련 ‘정리 수납 코칭 매니저 창업 과정’을 개강했다.

교육에 참여하는 20명의 교육생은 전문 교육을 통해 새로운 공채 창업에 도전하게 되며, 교육과정은 6월 26일까지 총 232시간, 정리수납 1급·2급, 강사 2급 과정 취득을 위한 정리수납 전문 교육, 공채 창업에 위한 소용 능력향상 및 사업구상 교육, 현장견학, 현장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 과정을 추가하여 교육생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정리수납 코칭 매니저 창업 과정은 정리수납 공채 창업뿐 아니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정리수납 습관 형성을 위한 코칭 교육까지 정리수납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국비로 진행되는 직업교육훈련은 △사회복지 행정실무 마스터 과정(48~6.28), △맞춤형 노인돌봄전문



가 과정(5.12~7.15)이며 위 과정은 현재 추가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노원환 행정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신애원에 사랑의 짬뽕 나눔활동 추진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업소(군산시 동령길 일원 소제)들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1일 짬뽕특화거리 내 업소 대표들은 사회복지시설 신애원을 방문하여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보짬뽕과 민규짬뽕 등 짬뽕특화거리 협회 소속 업소들이 참여했으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과 관계자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짬뽕과 사이드 메뉴를 제공했다.

또한, 식사 후에는 시설 입소자들과 교류 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짬뽕특화거리 협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은 우리 업소들의 중요한 가치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따뜻한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 짬뽕특화거리 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화거리 내 입점 업소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정읍농협, 소성면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정읍농협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은 지난달 31일, 소성면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주거지를 잃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기탁된 성금을 신속히 전달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읍농협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처한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농협은 평소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긴급 지원 지역 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평소의 나눔 정신을 실천한 사례로, 정읍농협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임을 보여줬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농협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



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된 성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민 간의 연대와 회복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 의미 있는 나눔으로 기록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진 농어촌공, 김제시에 고향사랑 42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가 고향사랑기부금 420만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임직원 42명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본인 또는 타지역 거주 지인 홍보 등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김제시 지역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하인호 지사장은 "기부금이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직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며 김제시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금된 기부금은 김제 시민의 복리 증진 등 김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중앙회 등, 정읍시에 고향사랑 2200만원 전달

정읍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와 NH농협 전북지역본부는 1일 정읍시청에서 기탁식을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2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 총괄본부장과 김성훈 NH농협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정읍시·농협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정읍시 발전을 위해 농협 전북본부와 정읍시지부 임직원들이 참여해 마련됐다.

농협 측은 "정읍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상생에 기여하고자 전 임직원이 한뜻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농협이 앞장서준 덕분에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민원과, 춘향제 홍보 위한 한복입기 캠페인

남원시 민원과 직원들이 제96회 춘향제 홍보를 위해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통의 멋과 친절이 어우러진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한복 입기 캠페인은 4월부터 춘향제 기간까지 진행되며, 이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에서 춘향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전통문화 계승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은 한복 등장에 반가움을 표현, "남원다움을 느낄 수 있어 기분이 좋아진다" 또한 "춘향제가 상큼 다가온 듯해 기다려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춘향제를 맞아 한복을 입고 민원인을 맞이하는 모습은 남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실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도통동, 찾아가는 치매예방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치매 예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통동 건강사업 '어르신 몸도 마음도 튼튼!'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고 있다.

교실에서는 치매 바로 알기, 치매 예방수칙 3·3·3 안내, 치매안심센터 이용 안내, 치매예방체조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진행 등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기억력 향상을 위한 인지 훈련, 생활습관 교육 등 치매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매월 1회 운영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의용소방대연합회, 쌀 30포대 기탁

무주군의용소방대연합회가 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전해 달라며 쌀 30포대(1포대 10kg / 1백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을 찾은 김용준 회장과 윤정순 회장은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마음으로 지은 밥 한 끼에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라며 "의용소방대는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숭선수범하는 단체로 거듭 발전해 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식 기자

전주교대-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박병춘은 지난달 28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협력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농업 관련 콘텐츠 및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춘 총장은 "양 기관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마련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